



화외리 집 앞에선 권용택 화백. 자연에서 희망을 찾는 화가 권용택의 작업장은 시대를 함께 고민했던 이들의 쉼터이기도 하다.

서울 남산 벚꽃이 살랑이는 바람에도 제 꽃잎 떨구는 4월의 마지막 토요일 길을 나섰다. 그를 만나러 가는 길은 산으로 향한다. 둔내터널을 빠져나온 영동고속도로는 본격적으로 산을 오른다. 사위는 온통 산이고 그 산들은 여전히 겨울의 미망에서 잠을 깨지 못하고 있다. 자작나무는 여전히 잎을 매달지 못해 산은 속살을 드러낸 채였고 그 속살은 누런 겨울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를 처음 만났던 날도 온 나라가 미망에 빠져 있던 때였다. 88서울올림픽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80년대의 막바지. '자랑스러운 나의 조국'이 확성기를 울렸

지만 도시는 여전히 독한 최루탄에 기침하고 눈물 흘려야만 했다. '타도해야 할 그들'과 '타도의 주체'가 세상에서 뒤엉켰다. 청년들은 아스팔트에서 막연한, 그러나 버릴 수 없는 구호를 외쳤다. 허공을 나는 경찰의 몽둥이의 목표는 시민이었고, 학생이었고, 노동자였다. 모여 외치고 몽둥이가 날고 사람들의 아우성이 아스팔트와 골목을 채우는 모습은 일상이었다. 그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어 들어선 화랑에서 권용택 화백을 만났다.

너무나 사실적이어 차라리 시적인 그림체로 살려 낸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는 무표정했다. 그 무표정 속에 오직 정면을 향하는 시선은 차라리 무서웠다. 타

대결에서 희망으로, 자연을 그리고 자연을 닮는 화가 권용택

글 윤승일 nagneyoon@hani.co.kr

도해야 할 권력으로부터, 그리고 그 권력에 대항하는 이들도 그저 '대상'으로만 여기던 그들은 그림 속에서 세월조차도 어쩔 수 없는 삶의 주체로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신라와 고구려의 고분에서나 봄 직한 그림으로 채워진 배경은 오직 그들의 편은 절대로 멈추지 않는 세월의 흐름이라는 것 또한 분명하게 말해 주었다. 그림 앞에서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참아 내지 못해 다시 뛰쳐나온 거리에는 구호도 경찰도 없었다. 다만, 9월의 태양만이 뜨거웠었다. 그림으로 맺은 권화백과의 인연은 거대한 충격을 남기고 잊혀지는 듯 했다.

버리고 찾은 화가로서의 자존감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고 했다. 20년이 더 흐른 세월. 권 화백의 이름은 잊혀졌고, 작품이 준 충격은 흐려

졌다. 많은 것들도 변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바뀌고 싶은 것들 투성이어서 방향은 멈출 수 없다. 다만, 인터넷의 등장으로 발품을 파는 대신 손가락 몇 번 움직여 그리운 이들과 그리운 풍경과, 이루고 싶은 세상

화가 권용택이 그린 오대천 수향계곡. 나아진 환경으로 다시 강으로 돌아 온 수달이 구름으로 그려져 있다.





사필귀정

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 그러한 자족의 삶은 다시 권 화백의 작품을 만나면서 또 한번 무너졌다.

인터넷에서 만난 권 화백은 강원도에서도 산골로 꼽히는 평창군 진부면. 그중에서도 오지로 꼽히는 화의리 하오개 고개 아래에 산다고 했다.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권 화백의 블로그는 그 어느 블로그보다 꼼꼼하고 친절했다. 20여 년 세월의 간극을 블로그는 채우고도 남았다. 그 동안 진화한 그의 작품도 빠짐없이 만날 수 있었고 강원도 중에서도 깊은 산골 화의리의 하오개 그림터를 찾아드는 권 화백의 지인들의 모습을 훑쳐보는 재미도 쏠쏠했다.

학교 선생님을 했다는 것도 미술계에서 다진 모든 위치를 버리고 후배들을 따라 80년대 민중미술에 뛰어 들었다는 것도 권 화백의 블로그를 통해 알 수 있었던 사실들이다.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에 수원미협 부회장이 라는 자리를 던지고 어린 후배들을 따라 민중미술계에 뛰어든 이유에 대해 권화백 자신이 풀어 쓴 답안도 찾

아볼 수 있었다.

“미술의 역할이란, 미적 요소들의 조화를 통해 미적인 즐거움과 삶의 질을 높여주는 기능과 예언자나 시대의 증인으로서 역사발전의 한 역할을 담당하는 교훈적 기능이 공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수증하며, 예술을 위한 예술적 자세를 지양하고, 이 시대가 처한 모순과 갈등 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비판적 자세를 지향하며, 수용의 토대조차 상실한 소외된 사람들과도 함께 호흡하고 소통할 수 있는 내용과 양식을 추구하고자 했다.” (1989년 8월 작업실에서)

당시의 시대적 환경이 그러했으니... 라는 말로 치부하기엔 권 화백의 민중미술로의 전향은 너무나 많은 것을 버려야 하는 일이었다.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는 일... 많은 사람이 꿈꿨고 그렇게 살았노라고 이야기 하지만 막상 속내를 들여다보면 대부분은 소외된 이들을 가르치려 들었고 그들을 어딘가로 이끌려 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권 화백 역시 그러했을까? 후배 평론가의 답은 그 반대지점에 가 있다.

“... 그런 면에서 권용택은 작가이면서 한편으로 대중 활동가였다. 그는 수원미술인협회 대표, 민예총 초대 수원지부장, 시민광장, 환경운동센터, 녹색환경연구소, 경실련, 수원 반딧불이 연구회, 심지어는 가정법률상담소에서 자원봉사자도 활동한다. 그는 조직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었다.”(〈기전미술〉 1호 객대원의 권용택 평론 중)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람, 권용택 화백은 왜 강원도 산골에 사는 걸까? 권 화백의 작품은 80~90년대와 다르다. 소외된 이들의 모습 대신에 꽃과 계곡과 산이 자리잡고 있다. 이런 변화를 평단은 “권용택은 자연에서 발견한 새로운 희망을 작품 안에 담아내고 있다”고 적고 있다. 함께 80년대를 살았다.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는 그 시대를 어떻게 살았기에 권 화백은 ‘새로운 희망’을 화폭에 담을 수 있는 걸까?

화의리, 화가 권용택의 희망그림터

몇 개의 터널을 지나서야 고속도로 표지판은 진부를 가리킨다. 톨게이트를 벗어나 전화번호를 눌렀다. 중저음의 낮은 목소리. 다정하다. 시골 먼 치고는 규모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진부면을 지났다. 한강의 상류 오대천을 따라 휘고 감아 드는 길을 한참이나 따라서야 하오개그림터 간판을 만난다. 차 한 대 겨우 지나가는 시멘트 길은 겹도 없이 산을 오른다. 잘못들었나 싶어 다시 전화번호를 눌렀다. 조금만 더 지나면 된다는 권 화백의 목소리를 듣고서야 다시 안내 간판이 보인다. 그렇게 고속도로를 지나 30여 분을 더 산에 가까워져서야 선글라스를 낀 권 화백을 만날 수 있었다.

“어서오세요”. 내미는 권 화백의 손이 따스하다. 권 화백의 뒤 집 벽에는 그가 사는 골짜기가 통째로 그려져 있었다. 산은 깊어 이미 해는 산을 넘어 겨우 한 뼘 쯤 햇빛이 비추는 땅에 노란 산수유가 피었고 생강꽃도 피었다. 권 화백의 안내를 따라 들어선 집 거실 통창조차도 온전히



하오개그림터 안내판. 국도를 벗어나 산으로 오르는 비좁은 길 갈림길마다 어김없이 세워 둔 안내판은 권용택 화백의 사람에 대한 배려를 알게 한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백석산. 쌀 백석이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유난히 나뭇잎이 많은 산이다.

“한 10년 넘었죠. 처음 들어 올 때는 길도 없었는데...”. 인권영화제 대표를 맡은 통에 들이닥치는 경찰을 피하기 위해 찾은 평창 금당계곡에서 걸어 걸어 들어와 만난 땅이 인연이 되어 이리 살게 됐노라는 설명

산골살이의 든든한 동반자 부인 이향재씨. 하오개그림터 인근의 수많은 자생화의 주인이기도 하다.





독도



노루귀



금강산 만물상

을 들었다. 국제적인 상도 두어 차례 수상한 화가라는 이력과 깊고 깊은 산골짜기에 새 삶의 동지를 틀은 탓에 방송과 언론의 관심도 받았다. 그러나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물었다. “나이도 있고 하니 이리저리한 자리를 안 맡을 수 없는 데 그 자리 때문에 분규도 나고…” 질문을 더 이상 던지지 않았다. 부딪혀 갈라지고 쪼개지다 다시 이어지는 것이 사람 사는 세상의 어

동강-달과 여름치



쩔 수 없는 이치라 하지만 당해 본 사람은 안다. 서로 힘을 합치겠다고 모여 서로에게 생채기를 남기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참 막무가내로 왔어요. 둘째가 고등학교 졸업반인데 그냥 두고 왔으니...” 한참 부모 손길이 필요한 자식을 두고 떠나올 정도라 사연은 더 묻지 않았다.

다만, 남편은 주위에 널린 돌에 천직인 그림을 그리고 아내는 그런 남편을 탓하지 않고 거실의 통창조차 한꺼번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큰 백석산의 온갖 자생화를 모아 뜰을 가꾸니 그저 행복하겠거니 추측할 뿐이다. 국제적인 상을 두어번 수상한 이름 난 화가가 강원도 산골에 들어와 사니 방송을 비롯한 언론매체가 부부의 삶을 적당히 버무려 사람들에게 알렸다. 행복한 전원생활... 꼭 도시의 삶에 진저리를 내지 않는 이라도 한번쯤 꾸기 마련인 삶의 모델이 될 수 있으니 그 또한 행복한 삶일 것이다.

그러나 권 화백의 안내로 들어선 집의 작은 방에서, 그리고 할미꽃 지천인 뜰을 가진 작업실에서 만난 그의 작품들은 권 화백이 여전히 치열한 삶을 살아내고 있음을 알게한다. 그 치열함이 대결의 구도를 넘어 기록하



하오개 표정

는 이의 관찰자적 자리조차 벗어나 구도자의 그것과 닮아 있다는 것을 아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작은 충격에도 갈라지는 주위의 청석을 주위 돌 생김새에 물감을 더해 권 화백은 금강산을 우리 눈앞으로 데려다 주고 독도를 외롭지 않게 한다. 길가에 버려져 있어야 할 돌 조각에도 지지 않는 꽃을 피운다.

조급했던 열정을 긴 호흡으로 한 걸음 더

자연(自然). 글자 그대로 풀어내면 ‘스스로 그렇다’라는 뜻이다. 권 화백에게 자연환경은 낯선 소재가 아니다. 1979년 프랑스 살롱전에서 금상을 받은 <폐철> 속에서도 한국의 분단 현실을 표현한 철길과 함께 철길에 묻혀 사는 강아지풀은 선명하게 자리잡고 있다. 1980년대 민중미술의 만행으로서 활동할 때의 작품에도 민주화를 가로막는 현실과 삶을 파괴하는 환경문제는 주요한 소재였다. 과거 권 화백의 많은 작품 속에서도 산과 강, 꽃, 비, 바람, 구름 등 자연을 찾아보기란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해야 한다는

의식이 누구보다 강한 탓일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공존의 길을 택한 것이 화의리의 삶일지도 모른다. 공존은 스스로가 낮출 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지난 해 권 화백은 자신이 사는 화의리의 이장일을 맡았다. 화가이면서도 대중활동가로서도 평가 받는 권 화백의 이력을 돌아보면 새로운 것이 없는 결정이다. 그리고 누구보다 권 화백은 이장일을 잘해낼 것이다. 벌써 수원시 인계동과 진부면의 자매결연을 성사시키

고 마을 어귀에 마을 안내판을 세우기 위해 마을의 전설을 수집하고 두 아들을 불러 멋진 작품을 세울 계획을 짜고 있다. 백석산에 등산로를 내고 마을 일에 열심인 것은 ‘나의 삶은 화가’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권 화백에게 창작의 동기 제공에 대한 방기와 무관심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치열한 운동이자 “현실을 살아있는 생명체로 바라보지 못하고 분위기만으로 조급했던 열정을 긴 호흡으로 추스르면서 또 한 걸음을 내딛는” 과정이기도 하다.

다시 선거의 계절이다. 잊었던 얼굴들이 ‘민주화 운동’ 경력을 앞세워 세상에 책임 못 질 말들의 잔치를 연다. 그들에게 화의리를 다녀오라고 권하고 싶다. 그곳엔 민중화가 권용택과 화의리 이장 권용택이 함께 산다.